

Industry 4.0을 위한 EUROMAP 인터페이스

– OPC UA를 구사하는 플라스틱 기계



EUROMAP 84 작업 그룹은 개방형 OPC UA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압출 성형 라인과 MES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위한 규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은 압출 성형 라인과 MES 시스템 사이 통신의 통합 표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자동화 전문업체 B&R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EUROMAP 84 작업 그룹은 개방형 OPC UA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압출 성형 라인과 MES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위한 새로운 집합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제조 기계 및 공정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기

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의 한계는 한층 더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EUROMAP 84 작업 그룹은 OPC UA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는 기계와 플랜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본적 요구사항이다. Industry 4.0 시대는 단순히 전송 기술로써 OPC UA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기계와 프로세스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제공되는지를 정의하는 정보 모델을 개발하는 일도 필요한 것이다.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핵심적 이정표 : K 2019

EUROMAP 작업 그룹은 내년에 다수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시할 예정이다. K 2019는 그러한 일련의 성과를 최초로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유럽 플라스틱산업 산하 기관인 EUROMAP은 독일 제조 연합 VDMA의 주도 하에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해 작업하고 있다. 그중에는 사출 성형 기계와 MES 시스템 사

이, 사출 성형 기계와 로봇 사이, 사출 성형 기계와 주변 기기, 그리고 블로우 성형 기계와 MES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OPC UA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VDMA는 “Plattform Industrie 4.0” 계획 주도 하에 기계 제조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위한 일반적 정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Gilgenberg에 사무실 확장

– 자동화 전문가– 생산, 사무실 공간 및 물류에 투자

B&R은 Eggelsberg의 B&R 본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Gilgenberg에 투자하고 있다. 이 확장으로 새로운 사무실, 트레이닝 룸 및 생산 공간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물류 창고도 세워질 예정이다.

Gilgenberg를 전자기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역량 센터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B&R 모터는 이미 그곳에서 조립되고 있다. 향후에 Gilgenberg는 지능형 ACOPOStrak 수송 시스템의 개발 및 생산 또한 주관할 예정이다.

Gilgenberg의 B&R 확장 프로젝트는 생산 및 사무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꾸준한 성장에 발맞추어, B&R은 인프라 및 생산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B&R은 Gilgenberg에 새로운 사무실, 트레이닝 룸 및 생산 공간을 확장했다.